

제24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경영의 구현
ESG, A Road to Stakeholder Capitalism

〈전경련 세션〉

ReBoot : Entrepreneurship (다시, 起業家정신이다)

2022.08.18(목) 14:00~15:30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세미나실 1

주 최 한국경영학회 매일경제

주 관 한국경영학회 전라남도 여수시

후 원 POSCO HOLDINGS HAREX 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FKI 전국경제인연합회 kakao 오로라월드 LG 에너지솔루션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SK 텔레콤 SK SUPEX주주협의회 NAVER GS 리테일 BGFretail NRF 한국연구재단 ABLEC&C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HYUNDAI 블랙보리 KYOBO 교보생명 MIDAS KMS PPI HYUNDAI KET 산업연구원 한국외환재단

ReBoot : Entrepreneurship (다시, 起業家정신이다)

일 시 : 8월 18일 (목) 14:00 ~ 15:30

장 소 :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세미나실 1

| 세션 개요 |

전경련 특별세션으로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 함양과 대학생들의 기업가정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 세션
전국 8대 지회장님들이 공동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전국적인 기업가정신 확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함



사회자: **정대율 교수 | 경상국립대학교**

- 한국경영학회 울산경남지회장
- 한국경영학회 기업가정신위원장
- (전) 한국창업학회 회장
- (전) 한국정보시스템학회 회장



개회사: **한상만 회장 | 한국경영학회**

- (현)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현)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포럼 이사장
- (현) 하나투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한국마케팅학회, 한국소비자학회, 한국복잡계학회 회장 역임



축사: **권태신 부회장/원장 |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제연구원**

- 2017. 02 現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 2014. 03 現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2009. 01 국무총리실 장관
- 2006. 05 駐 OECD 대표부 대사
- 2005. 07 재정경제부 제2차관



좌장: **김중화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 네브라스카대학 경영학 박사
- 1995~2005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 한림대학교, 조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발표자: **박영렬 교수 | 연세대학교**

대변혁시대의 기업가정신

-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원장
-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 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 회장
- (전) 한국경영학회 회장



특별초청 발표자: **남민우 이사장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사)벤처기업협회(KOVA) 회장
- 다산그룹 회장
- (주)다산네트워크 대표이사



토론자: **정동섭 교수 | 경성대학교**

- 한국경영학회 부산지회장
- 한국인적자원관리 학회 회장
- 한국인사조직학회 부회장
- (현) 경성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토론자: **변혜영 교수 | 강원대학교**

- 한국경영학회 강원지회장
-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장/경영대학원장
- (전) 전국국공립대학교 경영대학(원)장 협의회 회장
- (현)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토론자: **정진철 교수 | 조선대학교**

- 한국경영학회 광주전라지회장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대학원장
- (전) 현대경제연구원 전략컨설팅 실장
- (전) 군산기독교학원 이사(교육부파견)

주제 발표

대변혁시대의 기업가정신

박영렬 연세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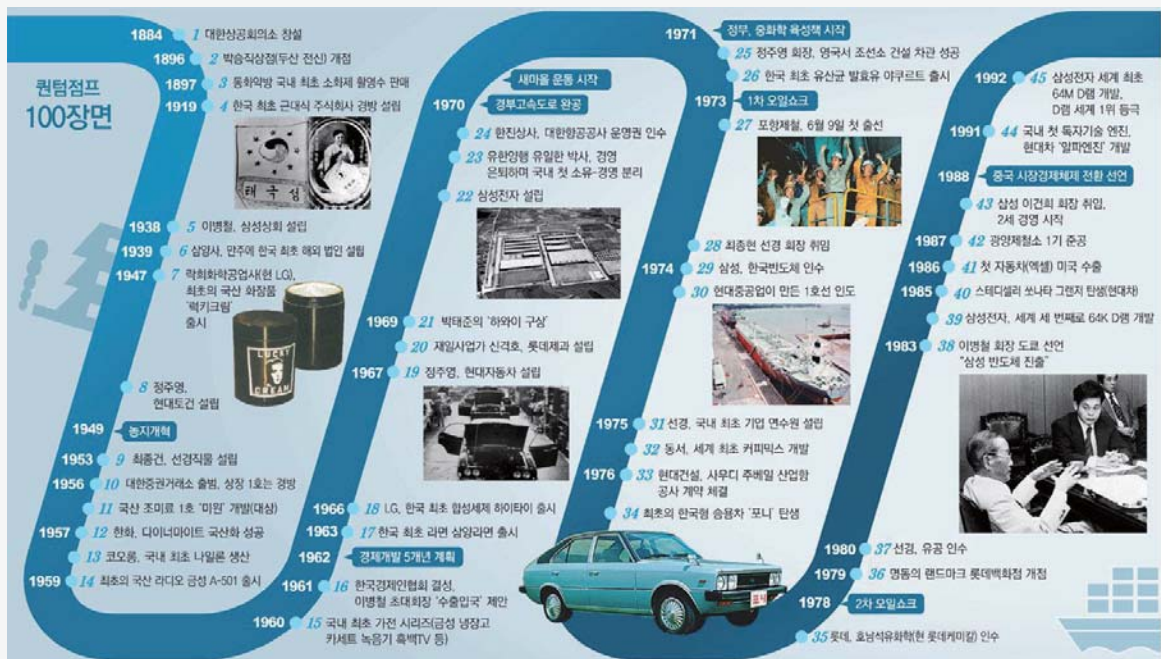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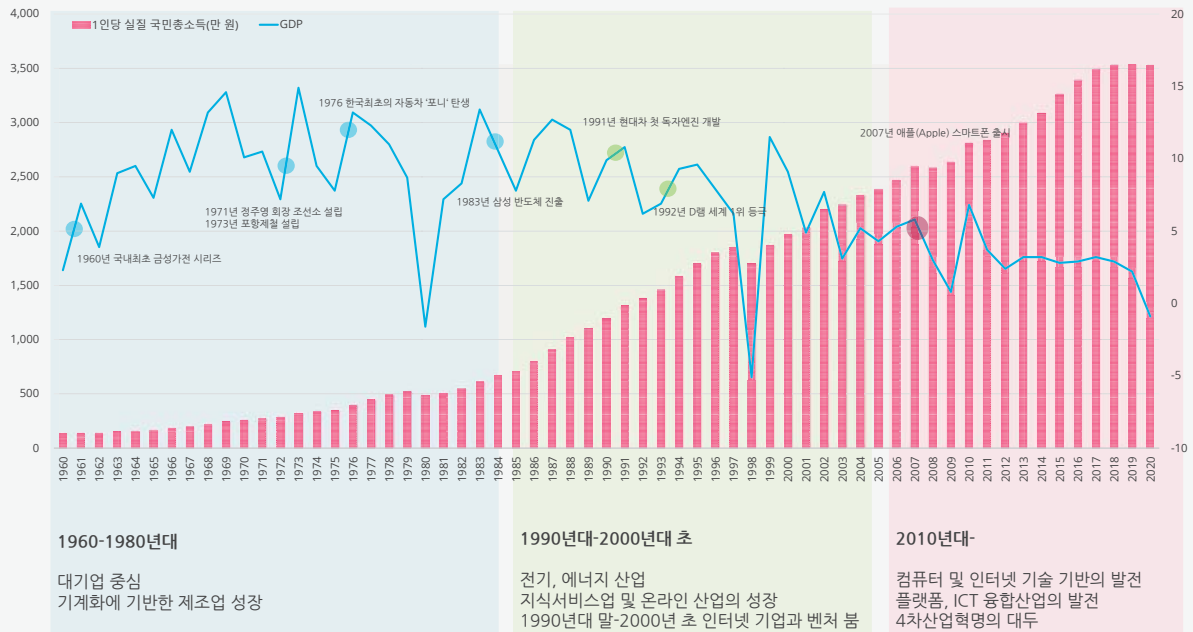
대변혁시대의 기업가정신

박영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사회과학협의회/아시아사회과학협의회 회장)



한국의 경제발전사





출처: 동아일보 (2019.12.09)

시대별 기업가정신의 변천과 변화요인

	제1세대			제2세대		제3세대
	전후복구기 1950년대	고도성장기 1960-70년대	전환기 1980년대	벤처성장기 1990년대	조정기 2000년대	창업대중화시기 2010년대
기업가역할모델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이병철, 정주영	정주영, 김우중	정문술, 안철수, 이민화, 조현경	김택진, 장병규, 김영달, 이해진	김범수, 권혁빈, 김봉진, 김범석
산업특성	농업, 광업, 의류, 식품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 수출업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컴퓨터	IT산업, 서비스 산업, 환경 및 에너지 산업	ICT 융합산업, 서비스산업, 바이오 및 에너지
자원원천	노동력, 내부자원 빈약	노동력, 낮은 인건비, 외국 원조	노동력, 국내자본 형성, 해외투자	자본력, 엔젤투자	기술력, 외국자본 증대, 자본시장과 M&A활성화	창의성, 아이디어, 기술 시장 및 자금정보
창업동기	생계유지	정부주도, 기회추구, 생계유지	정부주도의 기회추구, 부의 창출	사회적 분위기, 수익창출, 기술사업화	신기술 사업화, 생계형 창업 증대, 사회적 문제 해결	사회경제적 성공, 자아실현, 사회문제 인식
경쟁력 원천	외국원조 의존, 농업인구, 낮은 인건비	공업화 추진, 중화학공업, 낮은 인건비	건설, 제철, 자동차 등 핵심기술 획득, 수출력 획득	선도적 원천/핵심 기술 획득, 글로벌 시장, 접근성, 기술혁신 능력	선도적 기술혁신 (정보통신, 기술, 나노기술 등), 세계시장 접근, 실행력	글로벌 마인드, 네트워크 역량, 실행력

출처: 배종태 외 (2009), 김선우, 고혁진(20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제1세대

1950-1980년대: 고도성장기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구인회 회장 (LG그룹)



김우중 회장 (대우그룹)

- 1960-80년대 대기업 위주의 정부정책 및 산업정책의 영향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가정신이 발현된 시기
- 재벌 대기업이 건설, 식품, 의료 등 주요 산업에서 기업활동이 시작

출처: 배종태 외 (2009)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 창업자 (1938년)

- 개척정신
- 외부경영환경 변화와 기회 포착 능력
- 신기술 개발 등 혁신적 성향
- 인적자원 활용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 창업자 (1947년)

- 사업예측능력
- 과감한 의사결정과 추진력 - "하면 된다"
- 현장 진두지휘의 리더십



기업가정신 시기별 구분

이병철, 정주영, 구인회, 김우중

제1세대
1950-80년대

김범수, 김범석, 김봉진

제3세대
2010-

1990-2000년대
제2세대

김택진, 안철수, 이해진

제4세대?
2020-

출처: 배종태 외 (2009), 김선우, 고혁진(20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구인회 회장

LG그룹 창업자 (1947년)

- 고객 가치를 중시하는 고객경영 강조
- 먼저 도전하는 개척정신
- 연구개발
- 조직 구성원 간의 신뢰를 강조하는 인화단결



김우중 회장

대우그룹 창업자 (1967년)

- 해외시장 개척의 선구자
- 해외경영환경의 변화 능력 포착 능력
- 과감한 투자



제2세대

1990년대-2000년대: 벤처성장기



이민화 회장 (메디슨)



안철수 대표 (안랩)



김택진 대표 (엔씨소프트)



이해진 의장 (네이버)

- IMF 이후~2000년대 초반 벤처 버블 전까지는 중소기업 위주의 기업가정신 시대
-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과 전세계적인 **벤처 붐**이 시작
- 반도체 및 전자제품 위주의 산업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벤처 1세대들이 기업가정신 2세대가 됨

출처: 배종태 (200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제3세대

2010년대 이후 : 창업대중화 시기



김범수 의장 (카카오)



권혁빈 회장 (스마일게이트)



김범석 의장 (쿠팡)



김봉진 대표 (배달의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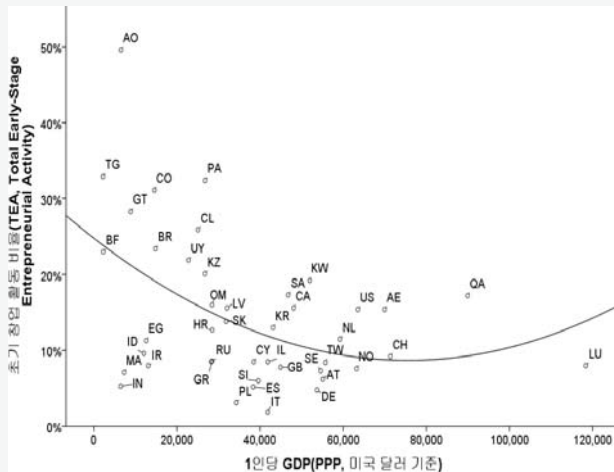
- 금융위기 이후 애플(Apple)의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스마트 플랫폼의 시대**가 시작
- 2010년 이후 창업 대중화의 시대가 개막
-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추진은 창업의 양적 확산을 가능하게 하였음

출처: 배종태 (200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경제발전과 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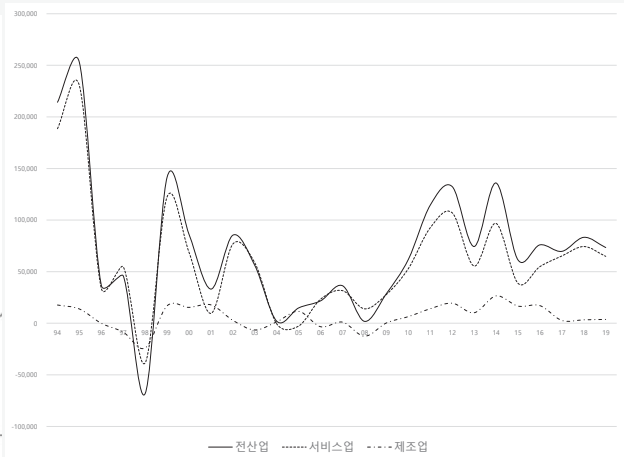
경제발전과 창업 간 U자형 관계

초기 창업 활동과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간 관계 (2020년 기준)



출처:이성준 (2021)

한국의 1994~2019 창업 현황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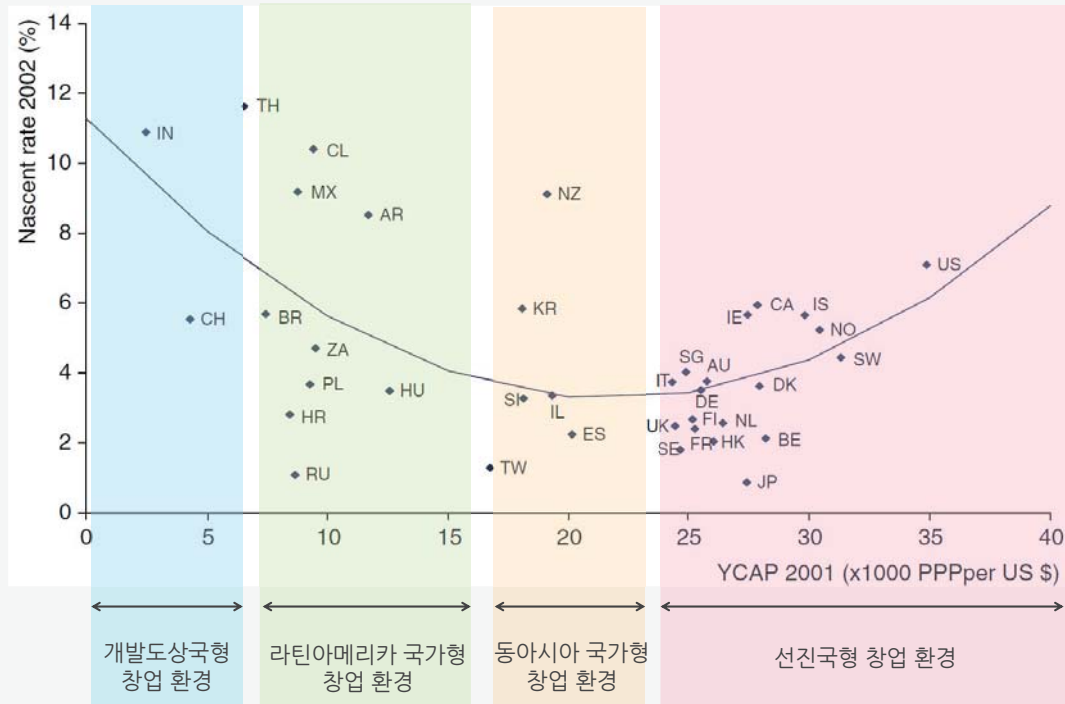


탈산업화 수준과 창업 동기에 따른 4가지 창업 환경

	높은 탈산업화 수준	낮은 탈산업화 수준
기회형(기술형) 창업	창업 환경 I: 선진국형 창업 환경	창업 환경 II: 동아시아 국가형 창업 환경
필요형(생계형) 창업	창업 환경 III: 라틴아메리카 국가형 창업 환경	창업 환경 IV: 개발도상국형 창업 환경

출처:이성준 (2021)





기업가정신이란?

- ✓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경영 방식이며,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음.
- ✓ ‘창조적 파괴’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면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쇠락함.

- “낡은 것을 파괴하고 창의적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가의 행동 및 사고 (Schumpeter, 2017)”
- “기민하게 이윤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동 (Kirzner, 1983)”
- “현재 통제할 수 있는 자원에 구애 받지 않고 기회를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Stevenson, 1983)

기업가정신이란?



21

창업기업가정신 vs. 사내기업가정신

- 창업기업가정신
- 사내기업가정신: 기존기업에서, 사내기업가가 신규사업을 개발하거나 조직을 전략적으로 쇠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업가적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 (배종태, 2009)
 - 사내벤처:
 - 내부창업(ICV)
 - 외부창업(Spin-off)
 - 전략쇄신

22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현황

1. 국가주도의 창업정책모델로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것으로 분석됨. 2008~2010년 후발추격형 창업생태계로 평가받은 반면, 2018~2020년에 이르러서는 창업국가형의 특징인 기회형 창업(improvement-driven opportunity entrepreneurial activity)이 점진적으로 증가, 기업가정신 인식의 개선, 초기기업가활동 증가 등의 변화를 이루어 냄. 그러나, 여전히 '생계형 창업(necessity-driven entrepreneurship activity)의 비율이 경제 규모와 발전 대비 높음.

- ✓ 즉, 한국의 창업생태계는 1960대와 1970년대 경제발전의 태동기를 거쳐 1980년대 1세대 벤처 등장 이후 지금까지 꾸준한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혁신을 표방하는 선진국형 창업 생태계와는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출처: 박영렬, 김중화 편저, 기업가정신 르네상스: 한국의 기업가정신 현황과 전망, 한국경영학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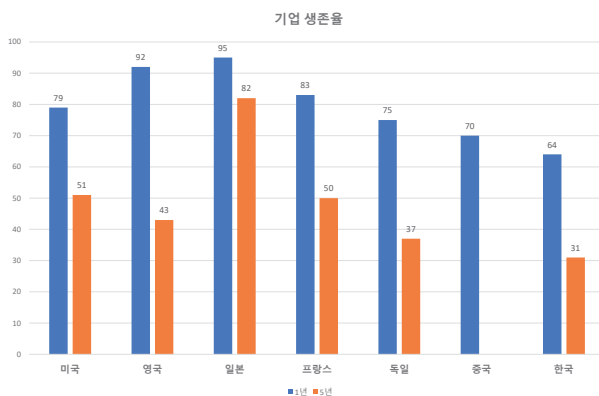
(본 연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원으로 박영렬(연세대), 김중화(한국외대), 이성준(한국외대), 이채원(한국과학기술대), 김가영(한국외대), 배종태(KAIST), 이주현(연세대) 교수가 참여하였음)

23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현황

2. 창업율(인구 수 대비)이 현재, 전세계 최고 수준이나 이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 사업화 자금 및 공간 제공 등이 창업예비와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로(예산의 약 80%) 이루어지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창업의 하드웨어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전반적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업가정신에 비해 높은 창업율을 달성하고 있으나, 창업 기업의 생존율은 상당히 낮은 상황임.



- ✓ 네트워킹 및 멘토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 지원 정책과 창업 후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비교국가들과 비교하여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 ✓ 민간 산업 주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혁신적 생태계 형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으로 파악됨.

24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현황 - 주요국과의 창업생태계 비교를 중심으로

3.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재창업활동도 낮은 수준임. 창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창업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는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로 창업을 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긍정적 인식은 아직 부족함.

- ✓ 따라서, 기업가나 더 나아가 경영자 일반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며, 창업 시도 자체만으로도 인정받고, 실패했을 때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실패로 인한 지식이 창업생태계에 환류**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문화적 변화를 포함하는 **전 사회적 인 인식의 전환과 발상**이 필요함.

25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현황 - 주요국과의 창업생태계 비교를 중심으로

4. 창업활동에 있어서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창업규제의 수준은 창업하기에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기존 기업의 사내기업가정신의 발현과 실행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고는 있으나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의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 조달 등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규제의 완화 및 최소화 필요함.

- ✓ 사외와 사내를 아울러 모든 창업 모델에 대한 네거티브규제 적용을 통해 전체 창업시장의 발전 속도를 높이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장 메커니즘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민간의 효율적 운영과의 연결성** 증대가 필요함.

26

기업가정신 어떻게 할 것인가?

첫번째, 기업은 사내기업가정신 고취와 창업활성화 및 지원에 집중할 것을 제안함. 따라서 정부 정책도 이를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환경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집중할 것을 제안함.

- ✓ 그 동안,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교육과 육성, 지원 등은 주로 **기업연계형** 이라기 보다는, 대학 및 대학생 또는 관련 지역사회 기관 등의 **독립적인(stand-alone) 창업기업**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 왔음. 사내기업가정신은 기업이 알아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임. 또한, 대부분의 기업은 사내기업가정신과는 무관하게 지내음.
- ✓ 그러나 기업이 자신의 역량을 끌어 모아 사내기업가정신의 교육과 지원 및 육성에 매진한다면 **창업의 생존율 또한 업그레이드 되고, 배태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련 및 비관련 사업기회를 발굴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더불어 자연스럽게 소위 기회형 창업이 늘어나게 될 것임.**
- ✓ 기업은 사내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지원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서, 기업연계형 창업활동을 강화하면, 기존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생존율과 성공율을 높여서 많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7

기업가정신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로,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를 통하여 배태 기업과 외부의 창업활동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함. 미국과 독일, 영국, 중국 및 최근의 일본 사례 등을 보면 사내기업으로 창업이 이루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CVC의 역할과 비중이 크고 점증하는 추세임.

- ✓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CVC가 전체 **벤처투자액의 9%** 이고, 일본은 44%임. 또한, 전세계 벤처캐피탈 투자에서 CVC가 참여한 비중은 투자건수 기준으로 **2014년 19%에서 2019년 25%로 상승.**
- ✓ CVC의 활성화는 결국, 우리나라의 창업 초기단계에서의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역할에 이어서, 후기단계에 민간의 투자를 연계해 벤처기업의 성장 경로를 따라 필요한 자금과 노하우를 제공하여 **탄탄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이 될 것임. 이는 기존 기업 뿐만 아니라, 업계와 정부, 시장 및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할 수 있음. **창업-성장-회수-재창업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탄탄한 창업생태계는 필수적인 요건임.
- ✓ 지역사회나 관련 정부기관과 네트워킹하여 **역할 분담과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임.

28

기업가정신 어떻게 할 것인가?

셋째로, 사내기업가정신의 고취와 함양,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이나 창업기업 경영과 성장을 위한 교육, 기업의 전략과 M&A 관련 교육 등은 대부분 대학이나 관련 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 기업안에서 배태기업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함.

- ✓ 기업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기업연계형 창업을 할 때, 사외에서 독립적으로 창업할 때 보다 성공율이 높은 의미 있는 창업이 되고, 배태기업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창업**이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 ✓ 결국 사내기업가정신의 강조는 **사내기업가정신의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그 동안 창업 기업가정신관련 교육과 연구를 수행한 대학과 연구기관, 관련 정부단체 및 기관, 지자체 등과의 **산학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높여 **고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판단함.

29

기업가정신 어떻게 할 것인가?

넷째로, 기업은 창업을 하고(**起業家**), 기업을 경영하는(**企業家**),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국민과 사회에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투자할 것을 제안함.

- ✓ 결국, 지금의 기업은 과거의 기업가정신으로 창업한 결과이며, 혁신적으로 창업한 기업도 결국은 기존기업이 되며, 창업기업 이든 기존기업 이든 결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사람이 될 것임.
- ✓ **반창업정서와 반기업정서는 모두에게 결국은 손해**가 되며 전혀 득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하려는 의지와 더불어 창업이 자연스러운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태도와 인식의 향상**이 필요함.

30

기업가정신 어떻게 할 것인가? - 맺는말

결론적으로,

그 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근간의 시발점은 기업가정신이며,
선진 한국경제의 견인차 또한 **기업가정신**이 될 것임. 왜냐하면, 미래 한국경제의
주역은 결국,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새로운 기술
과 제품, 서비스로 **인류에게 공헌**하는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임.

31

제4세대 기업가정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환경 변화

- 제2차 세계대전 종식(1945)
- 미소 냉전(1945-1989)
- 1차 오일쇼크(1973)
- 2차 오일쇼크(1979)
-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가속화(1990년 초부터)
- 아시아외환위기(1997)
- 글로벌금융위기(2008)

33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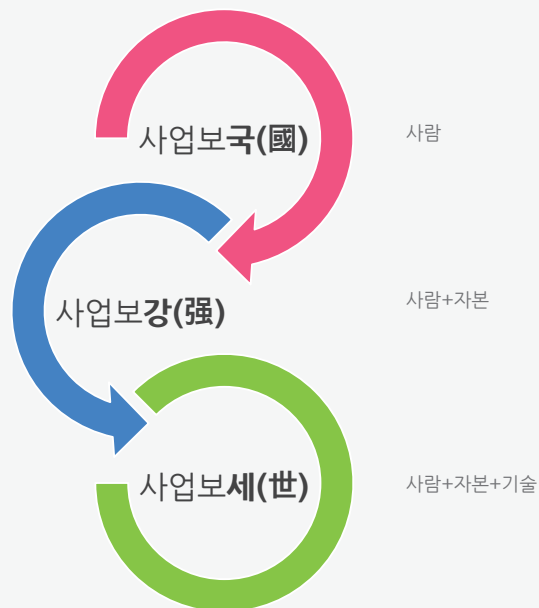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
- 자국 패권주의
- COVID-19 팬데믹
-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제동
- 글로벌 공급망 붕괴
- 신냉전 도래
- 환경과 에너지 위기
- 글로벌 인플레이션
- 글로벌 경기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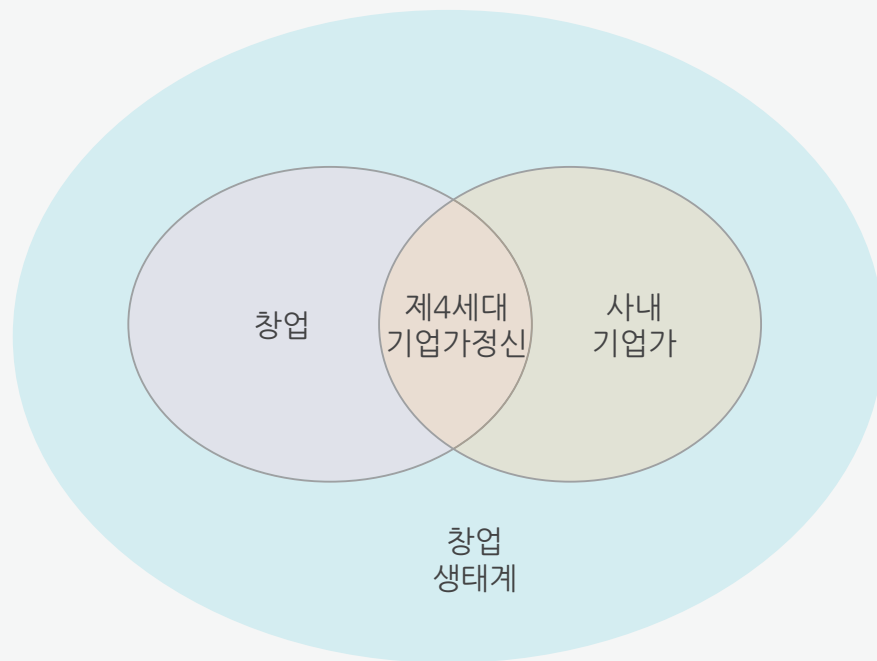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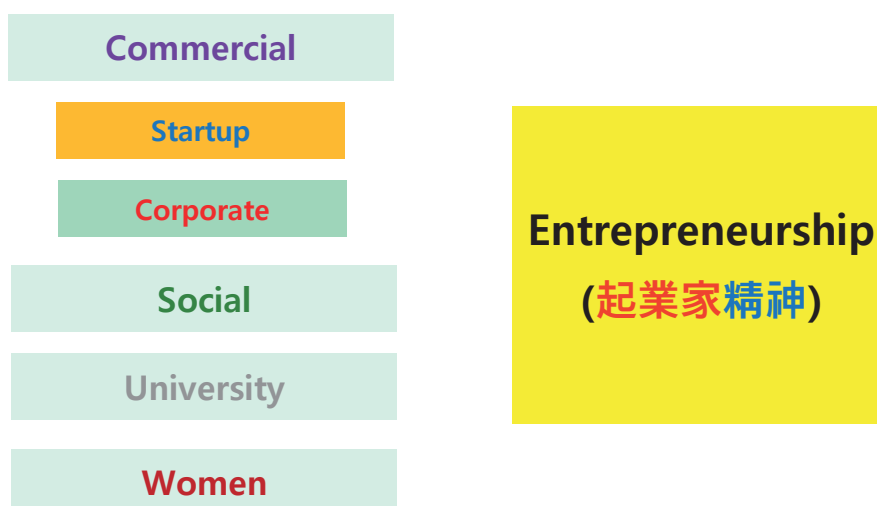
영역의 파괴 , 공간의 파괴, 사고의 파괴

제4세대 기업가정신 Purpose





X-Entrepreneurship



제4세대 기업가정신 ESG

- Energy
- Strategy
- Greatness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기업가정신 ESG

“ 교육, 연구, 산학협력을 통한 New Entrepreneurship 확산이 필요함 ”

39

Global
Entrepreneurship



기업가정신 ESG?



Leading Future Agendas of Business and Society - Entrepreneurship -



